

의식과 정신 인과*†

백 도 형‡

주관적인 의식과 정신 인과라는 두 가지 쟁점들은 언뜻 보기에 서로 상충되는 특성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두 가지 문제들에 관해 형이상학적으로 재검토해 볼 경우, 두 문제들을 가장 근본적인 시각에서 아우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의식과 정신 인과라는 두 가지 심리철학의 쟁점이 난제로 남아있는 것은 그 문제들을 보편자 실재론과 데카르트식 심신 이분법이라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보편자 실재론과 심신 이분법의 극복을 통해 현대 심리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개별자 존재론으로서의 심신 유명론(psychophysical nominalism as a particularism)을 제안한다.

【주요어】 의식, 정신 인과, 주관성, 물리주의, 실재론

1. 머리말 : 의식 문제의 배경

의식(consciousness)은 정신·심리 영역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서 ‘마지막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학문의 역사는 만학의 왕이던 철학으로부터 특수 과학의 영역들이 독립되어 나간 분과화의 역사로 볼 수 있다. 과학 탐

* 접수완료: 2008.11.27/심사 및 게재확정: 2008.12.10/수정완성본접수: 2008.12.15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1-A00138)

‡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구의 이념은 객관성의 추구이기 때문에 객관화가 용이한 분야들이 우선적으로 과학의 영역에 포섭되었다. 결국 인간 주관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 영역, 즉 심리학의 영역이 가장 최후까지 철학의 왕국을 지키던 보루였다. 그런데 19세기 중·후반기 이후 심리학마저 철학으로부터 독립되어 과학화를 추구하게 된다.¹⁾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철학으로부터 독립되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 보자. 심리 영역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방법은 내성적(introspective)이었지만, 경험적인 연구가 가능한 분야부터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영역에 포섭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Freud)는 정신적인 것의 본질을 무의식적인 것에서 찾음으로써, 경험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의식의 영역을 심리학의 주된 관심으로부터 배제시켜 버리고, 심리학을 과학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데에 사상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객관화를 지향하는 심리학의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어 행동주의, 기능주의, 인지과학, 진화심리학, 신경과학 등 객관화와 과학화가 가능한 연구방법이 추구되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제 1원리 이래 주관적인 것의 전형으로 여겨져 온 의식은 지금까지도 경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의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1인칭적이며 사적인 것이므로, 객관적이며 3인칭적인 과학적 연구방법으로는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²⁾

그러나 데카르트가 존재 세계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눈 이래, 의식은 정신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고, 최근의 현대 의학에서조차도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있더라도 그 의식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의과학자들의 인간의 정신 상태에 관한 주요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신적인 것에 관한 연구에서 객관화를 이유로 의식의 영역을

1) 잘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흐름이 철학의 정체성 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분석 철학 등 20세기 이후의 현대 철학으로 하여금 전통 철학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을 지향하도록 하게 된다.

2) 우리 속담 중 이러한 주관적 특징을 잘 표현한 것으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가 있다.

배제하고 무의식적인 것만 관심을 둔다는 것은 심리학을 경험과학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데에는 손쉬운 방법인지는 몰라도, 정신 영역에 관한 불완전한 과학으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인지 과학, 신경 과학 등 현대의 발달된 심리학 기법으로도 의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연구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고, 따라서 존재 세계에서 의식의 영역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심리학이라는 과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한 철학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근세 이후 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물리학으로 세계의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물리주의(physicalism)가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널리 여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의 '세계의 모든 부분'에는 당연히 정신의 영역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심리철학에서 또 하나의 핵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 인과(mental causation)의 문제이다. 즉 분명히 정신 사건들 사이에 또는 정신 사건과 물리 사건들 간에 인과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리주의가 옹호하는 물리 세계 속에서 정신적인 것이 어떻게 인과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정신 인과의 문제이다. 그런데 바로 최근 정신 인과의 문제가 의식을 비롯한 정신적인 것의 영역에 존재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물리주의를 받아들여서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을 받아들이는 한, 물리 속성과 구별되는 정신 속성은 물리 속성의 인과적 힘을 넘어서서 구별되는 인과적 힘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부수현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물리 현상과 차별화되는 의식 현상이 과연 그렇게 차별화되어 보이는 만큼 존재론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정신 인과의 문제를 통해 제기되게 된다. 의식 현상은 현상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함을 지니지만, 과연 부수 현상이 아닌 명실상부한 존재론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³⁾ 환원주의

3) 데카르트식 2원론처럼 물리적 실재와 별개의 존재로서 의식 등 정신적인 것들을 상정한다면 일단 정신적인 것의 존재론적 위상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도 이미 문제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은 당연히 되기

나 제거주의와 같은 강한 물리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부수현상으로서의 의식 등 정신적인 것들'을 포기한다면 정신 인과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데카르트 이래 인간 존재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져온 의식 등 정신 현상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직관에 매우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심신 환원주의나 동일론처럼 의식을 물리현상과 동일시 하기에는 둘은 본질적으로 동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의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데 반해, 물리 현상은 객관적이고 3인칭적인 경험과학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세기 이후 심리학의 급속한 발전은 이전에는 철학 등 인문학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정신 영역의 많은 부분에 관해 사실상 경험 과학적 연구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의식의 영역은 아직도 경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는 난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의식의 문제가 최근 심리학계와 철학계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또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대부분의 연구 작업들이 의식의 특정한 측면을 중심으로만 진행될 뿐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해 왔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심리학의 '최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의식의 문제가 왜 이러한 난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 진단해 봄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논의의 진전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2. 물리주의와 정신 인과

의식의 문제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심신 문제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존재론적 논의 상황을 먼저 짚어 보겠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무렵에 복수실현가능성 논변으로 인해 심신 동일론이 무너지게 된 이후, 심리철학

때문에, 데카르트식 실체 2원론을 검토하는 문제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의 그 다음 주류 이론의 지위는 비환원적 물리주의 쪽으로 넘어갔다. 심신 동일론이 강한 물리주의 입장이라면,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실체 1원론과 속성 2원론의 형태를 옹호하는 약한 물리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실체 차원에서는 물리주의를 인정하지만 속성 차원에서는 물리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신 속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2원론이 갖는 직관은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실체 차원에서는 물리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2원론이 갖는 존재론적 부담은 벗어날 수 있다는 절묘한 입장인 것 같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심신 문제에 관한 주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 이후 김재권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속성 2원론으로서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존재론이 공격받는다. 이들의 공격과 비환원적 물리주의 옹호자들 간의 반격이 보여주는 논쟁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정신 인과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데카르트식의 실체 2원론과는 달리 실체 차원에서는 물리주의를 옹호한다. 따라서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the causal closure of the physical domain)”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시각에 어떤 원인을 갖는 어떠한 물리 사건도 물리적 원인을 갖는 것이다. 즉 세계의 존재하는 모든 인과관계의 원인축을 거슬러 올라가도 물리 세계의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환원적 물리주의 입장은 이러한 물리주의라는 실체 1원론과 함께 속성 2원론의 입장을 띤다. 즉 물리 속성과 함께 정신 속성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다보니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신 속성이 인과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신 인과이다. 예컨대 철수가 골목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쁜 기억이 생각나 화가 났고 그 화감에 길에 있는 돌맹이를 걷어차는 행위를 했다고 하자. 이 때 돌맹이를 걷어찬 행위의 원인으로 철수의 화남이라는 정신 사건을 들 수 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비환원적 물리주의에서 이러한 정신 사건을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정신 속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리주의 실체 1원론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돌멩이를 걷어찬 행위에 대한 물리적 원인이 되는 사건, 예컨대 적절한 신경생리 사건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정신 속성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물리 속성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두 가지 인과 작용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두 원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두 원인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김재권에 의하면 두 원인 간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⁴⁾ 하나는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각각 부분적 원인이 될 뿐이며 이 두 원인이 합해져야 비로소 하나의 충분한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정신적 원인이 인과관계의 필요조건으로 개입하는 셈이므로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선택지는 두 원인이 각각 결과에 대한 독립적이고 충분한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행위라는 결과가 두 별개의 충분하고 독립적인 원인들에 의해 과잉 결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신적인 원인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즉 물리적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적 원인만으로 인과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도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중 어느 경우를 택해도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 결국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존재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 김재권의 비판이다.⁵⁾

이 비판은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실체와 속성은 형이상학적으로 구별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실체 차원의 물리주의와 심신 두 속성 간의 비환원성은 함께 옹호할 수 있는 별개의 주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김재권의 비판에 따르면 그 둘을 함

4) Kim(1989), pp. 280-1.

5) 두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의 두 선택지 외에 정신적 원인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경우, 또 정신적 원인이 사실상 물리적 원인과 동일한 사건임을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제거주의가 되어 버리고 [Kim(1989), pp. 268-71], 후자의 경우는 환원주의가 되어 버려서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김재권은 주장한다. [같은 글, pp. 281-2]

게 옹호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 2원론으로서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어려움은 의
식 문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까? 의식이야 말로 가장 대표적인 정신
속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니만큼,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어려움은 의식을 속
성 차원에서 옹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함축하게 된다.

3. 의식의“어려운 문제”

그러나 의식 현상을 옹호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김재
권의 비판과 정신 인과 문제의 귀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과를 중심으로
존재를 논하는 김재권 등의 방식은 이미 물리주의에 친화적인 방식을 전제
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할 것이다. 정신 인과 문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주관적 의식 현상의 비환원성
을 제기하는 철학자들은 아직도 많다.

프랭크 잭슨(Frank Jackson)은 “지식 논변”으로 알려진 유명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의식 현상의 중요한 사례로 거론되는 감각질(qualia)이 부수현
상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⁶⁾ 또한 조셉 르바인(Joseph Levine)은 감각질 등
의식 현상은 물리적인 것과의 사이에 존재론적인 틈새는 아니더라도 설명
의 틈새(explanatory gap)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⁷⁾ 결국 이들의 논의
에서는 김재권이 비판하는 식의 존재론적인 귀결 자체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⁸⁾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존재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인식론적인 반박, 즉 설명 차원에 불과한 반박을 하고 있

6) Jackson(1982), (1986), 또 백도형(1997) 참조.

7) Levine(1983), (1993) 참조.

8) 지식논변을 다룬 잭슨의 초기 논문이 Jackson(1982), Jackson(1986)이고, 설명의
틈새를 다룬 르바인의 첫 논문이 Levine(1983)이기 때문에 Kim(1989)보다 먼저
출판되었다.

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데이비드 차머스(David J. Chalmers)는 이러한 인식론적인 설명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⁹⁾ 그는 의식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대체로 기능적, 인과적, 혹은 신경과학 등 물리적 차원의 논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정도의 논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의식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식의 관한 문제 중 많은 부분이 기능적, 인과적, 혹은 신경과학 등 물리적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인정하긴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의식에 관한 “쉬운 문제(easy problems)”라고 말한다. 반면에 의식의 본성에는 이러한 “쉬운 문제”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남아있는데 차머스는 이것을 의식에 관한 “어려운 문제(hard problems)”라고 부른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의식이 갖는 주관적, 현상적, 질적인 요소 때문에 생겨난다고 차머스는 주장한다. 기능적, 인과적, 혹은 신경과학 등 물리적 차원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바로 “어려운 문제”이며, 이것이 의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일견 차머스는 이러한 주장을 잭슨이나 르보인처럼 인식 차원, 설명 차원으로 국한하여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만약 거기에 국한한다면 사실상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2장에서 본 김재권의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차머스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속성 2원론보다 훨씬 강한 자연주의적 2원론(Naturalistic Dualism)을 주장한다.

그는 의식의 전형인 현상적 경험을 물리적인 것에 추가하여 근본적인(fundamental) 것으로 놓으면서, 그것이 물리적인 것으로는 결코 환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물리적이 아닌 이질적인 존재자를 추가로 상정하는 것이므로, 잭슨, 르보인 등의 인식론적인 논의를 넘어서는 존재론적 주장임에 틀림없다. 이런 주장은 형이상학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존재론적인 부담을 갖는 주장일 듯하다. 하지만 차머스는 그

9) 이하의 차머스에 관한 내용은 Chalmers(1995/2007A), (1995/2007B)에서 정리하였다.

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물리학의 역사에서도 이런 식의 존재자 추가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즉 맥스웰이 전자기학을 도입할 때 물리학 이론에 전하, 전자기력 등을 추가하여 물리학을 확장하였는데, 자신의 자연주의적 2원론이 현상적 경험을 물리적인 것에 추가하는 것은 맥스웰이 전자기학을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새롭게 현상적 경험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닫힌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 법칙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 이론에 대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선 “물리 이론에 대한 보완”이라는 주장은 결국 차머스의 의식 현상이 넓은 의미에서 물리계에 포섭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차머스 자신이 “어려운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듯이, 물리적 존재자와 의식의 현상적 경험은 그 속성이 전혀 다르다. 물리계의 특징은 양화될(quantified) 수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3인칭적인 객관적 측정을 통해 객관화·보편화될 수 있는 현상이다. 반면 앞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논하면서 언급했듯이 의식의 현상적 경험은 질적이며 1인칭적인 주관성을 갖는다. 차머스도 주장했듯이 이러한 의식 현상의 특성이 의식을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맥스웰의 전자기학 도입의 경우는 다르다.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아마도 전하, 전자기장 등이 이질적인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그 이전의 물리학인 뉴턴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거시 물체나 천체의 움직임에 적용되는 물리 이론 체계였기 때문에 그 이론의 대상은 데카르트의 물질 속성인 연장(extension)을 만족시키는 것들이었다. 반면에 전자기학에서 새로 등장한 전하, 전자기장은 연장의 속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마치 이질적인 존재자를 추가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도 결국 물리학의 가장 기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힘을 전기력, 자기력, 전자기력의 형태로 지니며 고전 역학의 기본 법칙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물리학에 완전히 포섭된 것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¹⁰⁾ 그

10) 예전에는 ‘유물론(materialism)’이란 용어가 주로 쓰였는데 반해 최근에는 ‘물리주의(physicalism)’란 용어가 더 많이 쓰이는 까닭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러니 맥스웰의 전자기학은 물리계의 확장·보완일 수 있지만, 현상적 경험 등 의식 현상을 도입하는 것은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를 더하는 것이 된다.¹¹⁾

4. 의식의 주관성과 물리주의의 객관성

물리주의에 대항하는 차머스의 “어려운 문제”는 의식의 주관성에 초점을 둔다. “지식 논변”, “설명적 틈새” 등의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토머스 네이글의 “박쥐 논변”도 유명하다.¹²⁾ 존 씨얼(John R. Searle)은 데카르트 이래 전통적인 심신 개념 때문에 의식 문제를 비롯한 현대 심리철학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씨얼도 앞에서 본 차머스나 잭슨, 르바인 등과 같이 2원론 진영에 서서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자이다. 그의 논의를 잠시 따라가 보자.

차머스가 의식의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보면서, 의식의 주관성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물리주의자나 기능주의자들이 다루는 심리철학 문제를 “쉬운 문제”라고 보았듯이, 씨얼은 지금까지의 물리주의(혹은 유물론)¹³⁾ 이론들이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의식을 그 논의에서 배

데카르트식으로 생각하자면 전하나 전자기장 등은 물질 속성인 연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식 ‘물질’ 개념을 적용시키기가 어렵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들을 데카르트의 배타적인 심신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고전적인 ‘물질’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물리적 존재자’, 혹은 ‘물리적인 것들’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유물론’이라는 용어보다는 ‘물리주의’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11) 차머스는 의식이 물리적인 것에 자연적으로는 수반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수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자연주의적 2원론을 옹호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와 비판은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12) Nagel(1974) 참조.

13) 씨얼은 Searle(1992)에서 ‘물리주의(physicalism)’란 용어 대신에 ‘유물론

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심리철학에서 의식이 배제된 이유를 데카르트 이래 심리철학의 전통에서 물리주의와 2원론이 배타적인 양분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양분법이 지배하는 상황인데다가 데카르트식 2원론이 과학적인 현대 세계상과 양립할 수 없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주의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2원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써얼은 주장한다.

즉 써얼은 지금까지의 심리철학의 전통에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전제들이 놓여 있어서 난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¹⁴⁾

- 1) 마음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서는 의식과 의식이 갖는 독특한 특성은 부차적인 중요성 밖에 갖지 않는다. 의식과 주관성에 관한 해명이 없어도 언어, 인지, 그리고 그 밖의 정신 상태 일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 2) 실재 자체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과학도 객관적이다.
- 3) 실재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연구하는 최선의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 즉 3인칭적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다.
- 4) 3인칭적 객관적 관점에서 정신 현상에 관한 문제는 그 행태를 관찰함으로써 대답될 수 밖에 없다.
- 5) 지능적 행태(intelligent behavior)와 그것에 대한 인과 관계들이 정신적인 것의 본질이다.
- 6) 우주의 모든 사실은 원칙적으로 인간에 의해 알려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
- 7) 존재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물리적인데, 물리적인 것이란 전통적으로 정신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다.

즉 물리주의는 3인칭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객관적인 세계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1인칭적인 주관성을 본질로 하는 의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materialism)'이라는 용어를 쓴다. 나는 지금 이 글의 논의 맥락에서는 이 둘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구별하지 않고 쓰겠다. 하지만 주 10에서 밝혔듯이 최근 철학자들은 써얼과 달리 '물리주의'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14) Searle(1992), pp. 10-1.

것이다. 2장에서 본 정신 인과 문제를 다루면서 김재권이 제시한 비환원적 물리주의 비판 논변이나 기능주의, 환원주의, 제거주의 등 물리주의 입장은 의식의 주관성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머스는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고 “쉬운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며 앞에서 본 르봐인, 잭슨, 써얼 등의 비판도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써얼도 이러한 문제가 데카르트 이래의 이분법적 심신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이러한 양분법은 사실상 데카르트 이래 무비판적으로 써온 전통적인 용어법에서 기인하였는데, 유물론자들은 데카르트의 실체 2원론은 거부하면서도 데카르트 2원론의 용어와 범주들은 그대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유물론자들은 2원론의 잘못된 가정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통화시켰다고 써얼은 주장한다.¹⁵⁾

나는 써얼이 제시한 의식 문제의 이러한 성격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예컨대 조금 전에 3장에서 보았듯이 데카르트 이래 의식의 본질은 주관성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 점은 물리주의 등 과학지향적인 세계관이 추구하는 객관성과 원천적인 부조화를 갖는다. 또한 데카르트에 의하면 물질 실체의 기본 속성은 연장(延長, extension)이며, 연장은 공간적인 속성인데 반해, 정신 실체는 비공간적 속성을 가진다. 또한 물질은 나누어질 수 있는 속성을 지니지만, 정신은 비가분적(非可分的)이다.

이러한 대비는 데카르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데카르트 때부터 모순적이고 배타적인 대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데카르트식 심신 개념을 받아들이는 한 심신 문제는 원초적으로 또 선험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 같다. 예컨대 정신적인 것이 갖는 주관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차머스식의 “쉬운 문제”에 불과하다고 비판받거나, 주관적인 형태로서의 의식이나 정신 상태의 존재를 부정하는 “제거주의자”로 매도되기 쉽다.

15) 써얼은 유물론과 2원론의 양분법을 극복하면서 소위 ‘생물학적 자연주의(biological naturalism)’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의 입장도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유사한 존재론적인 문제점을 갖는다. 이에 대한 상세한 비판으로는 백도형(1994)을 참조.

나는 이 문제가 흔히 알려져 있듯이 심신 문제라는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개념의 문제, 말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생각의 근거를 더욱 발전시켜 보겠다.

5. 2원론에 대한 비판

의식 현상은 현상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것과 구별되는 독특함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수현상이 아닌 명실상부한 존재론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식의 문제를 낳는 근본적인 전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본 전제는 <물리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주관적인 의식이 존재한다>는 존재 주장이다. 이러한 전제를 우리는 과연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철학사에서 이러한 생각이 처음 성립한 것은 데카르트가 실체 2원론의 입장을 취하면서부터였다. 그의 실체 2원론 논의를 시발로 하여 심신 문제가 서양철학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며, 최근까지도 서양 형이상학의 주요한 문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데카르트 당시의 시각을 지금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지 않다.

예컨대 데카르트식 2원론의 시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은 물리주의에 비판적이고 2원론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철학자들이 제시했던 일반화 논변(*generalization argument*)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¹⁶⁾ 2장에서 살펴 보았던 비환원적 물리주의 내지 속성 2원론의 입장에 대한 김재권의 비판에 대해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일반화 논변으로 반박한다. 즉 만일 김재권의 지적대로 정신 속성이 부수현상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정신 인과뿐

16) 물론 일반화 논변을 제기한 철학자들은 실체 2원론보다는 속성 2원론을 옹호하려는 철학자들이었다. 일반화 논변에 관한 나의 비판적인 생각에 관해서는 백도형(2005B)을 참조.

만 아니라 모든 거시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¹⁷⁾ 그에 따라 정신 속성 뿐만 아니라 모든 거시 속성이 부수현상이 된다는 것이다.¹⁸⁾

일반화 논변은 심신 관계가 여러 다양한 존재 계층들중 일부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다음의 존재 계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미시 물리적 존재자
- ② 일상 사물(거시 물리적 존재자)
- ③ 생명체
- ④ 개인으로서의 인간(정신, 이성)
- ⑤ 사회

이러한 다섯 개의 존재 계층들은 대략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더 세부적으로 다양한 존재 계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심신 관계는 ①과 ④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다. 데카르트가 당시에 2원론을 생각한 것은 다분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생각이며, 이러한 데카르트의 입장이 서양 근세의 휴머니즘을 여는 중요한 단초들 중 하나였음은 이제는 흔히 거론되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2원론이란 아이디어는 아직 학문이 본격적으로 세분화되기 이전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학문 분야가 극도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다양한 존재 계층들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의식 등 정신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단순히 존재 계층 ④의 실재만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③, ⑤ 등 다른 존재 계층의 실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④만이 실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있을까? ①뿐만이 아니라 ①에 환원되지 않는 ④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②, ③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보다 거시적인 ⑤도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거시적인 존재계층은 ⑤이외에도 많이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감안해 본다면 그 이상의

17) Baker(1993), p. 87. 또 같은 논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Burge(1993), Van Gulick(1993)도 보라.

18) Van Gulick(1993), p. 249.

존재계층을 상정하고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¹⁹⁾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존재론적 부담을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마치 100여 년 전 분석철학 태동의 중요한 배경이 된 문제의식을 야기했던 마이논의 스캔들과 유사한 부담스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존재계층은 배제해 버리고 ④만 특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²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2원론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소박한 생각인 것이다. 사실 1원론이 아닌 2원론이 제기되는 논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환원성이다. 즉 가장 기초 존재 계층인 ①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심신 관계, 즉 ①과 ④ 간에만 비환원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①에서 ⑤로 내려갈수록 거시적인 존재 영역이 되는데, 보다 거시적인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미시 영역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속성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속성이 바로 미시적인 것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각 존재 계층 단계의 고유 속성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시대보다 훨씬

19) 위에서 제시한 ①-⑤보다는 훨씬 추상적인 존재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논의가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철학계에서도 수에 관한 실재론이나 도덕 실재론 등의 입장이 자주 거론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플라톤의 형상계나 포퍼의 제 3세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추상적 존재자 계층의 실재를 주장하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추상적 존재계층의 실재까지 주장한다면 실재하는 존재계층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 이러한 생각은 백도형(2002)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다른 존재계층과는 다른 ④의 독특한 점은 그것의 주관성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다른 존재계층들과는 차별화된다는 지적이 있다. 필자의 초고를 읽은 이종권 선생님과 『과학철학』의 익명의 심사위원 한 분이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다. 또 이 주장은 써얼도 Searle(1992)의 4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심리철학 논의 흐름의 맥을 짚는 중요한 주장이다.

이에 관한 필자의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주관성' 개념의 바탕이 바로 데카르트 이후 서양철학 논의의 근원이 되는 주-객 이분법이라는 점만 지적하겠다. 그리고 '주관성'에 대비되는 '객관성'이 바로 이 글 6장에서 필자가 비판하려고 하는 실재론을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언급하겠다. 이러한 생각의 일단이 백도형(2000)에도 나와 있다.

세분화된 학문 영역에서 바라보는 현대적인 존재 계층들에서는 모든 계층마다 비환원적인 자율성이 있다는 것이 ‘학문 각 분야의 자율성’으로 옹호되고 있다.²¹⁾ 따라서 데카르트 당시보다 훨씬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학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꼭 데카르트식의 2원론적 사고를 당연시할 필요는 없다. 즉 2원론과 물리주의(혹은 유물론)의 두 가지를 가능한 모든 선택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²²⁾²³⁾

6. 심신 문제와 실재론

2장부터 지금까지 의식의 문제가 왜 심리철학이나 심리학의 “마지막 문제”로 불리울 정도로 난제인지 살펴보았다. 2장에서 살펴본 정신 인과의

21) 이에 관해서는 백도형(2008) 참조.

22) 심리철학 연구자들은 심신 이분법 식의 사유를 당연한 것으로 놓아두고 거기서 그 둘의 관계만을 문제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데카르트 이전의 서양고중세철학, 또 동양철학의 사유를 생각해 볼 때 심신 또는 심물의 두 가지 존재 계층만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보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3) 『과학철학』의 익명의 심사위원중 한 분은 아마도 이 대목을 염두에 두고 필자와 물리주의자, 나아가서 현대 심신 문제의 논의 대부분이 계층적 세계관을 수용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들 간의 방법론적 인식론적 자율성을 옹호하는 것과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존재론적인 실재론을 각 계층마다 인정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전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엄격한 존재론 내지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아니므로 존재론적인 부담을 갖지 않는다. 다른 글에서 또 이 글 말미에서 다루고 있는 필자의 입장인 심신 유물론도 언어적인 계층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역시 존재론적인 부담이 없다. 존재 계층에 대한 실재론의 입장은 필자가 6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주의자들도 계층적 세계관을 실재론의 입장으로 옹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계거주의나 환원주의와 같은 강한 물리주의자들은 대체로 존재계층 ①만을 옹호할 것이고 기껏해야 ②까지 옹호할 것이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같은 약한 물리주의 입장은 ④를 비롯해 그 이상의 상위 계층도 인정할 것이나, 여러 분야의 학문적 자율성에서 계층에 대한 실재론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 2장에서 살펴본 정신 인과 문제가 주는 교훈이다.

문제를 참조해 볼 때, 물리주의를 받아들이는 한 물리주의 세계관 내부에 부수현상론 이상의 의식의 자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조금 전 5장에서 보았듯이, 의식 등 정신적인 것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바로 같은 이유로 함께 인정해야 할 다른 존재 계층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의식의 문제가 차머스가 말한 대로 “어려운 문제”가 된 것은 <주관적인 의식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식에 대해 실재론 특히 속성 실재론의 입장이 당연히 되었기 때문이다.

속성 실재론에 의하면 속성은 인식 주관의 마음이나 이론, 또는 개념·언어에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조금 전 5장에서 보았던 존재론적 부담은 각각의 존재계층의 실재를 전부 인정하게 될 때의 부담을 말한다. 즉 하위 속성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속성들이 상위로(거시적인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든 존재계층의 속성들을 모두 실재하는 것으로 본다면 존재계의 불필요한 팽창이나 중복을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온 속성 실재론이 심신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근원임을 인식하고 재고하는 것이 해결책의 실마리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심신 이론들은 주관적인 의식과 물리주의라는 언뜻 보기에도 서로 상충되는 특성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듯이 보인다. 의식과 정신 인과라는 두 가지 심리철학의 쟁점이 난제로 남아있는 것은 그 문제들을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정신 인과, 심신 수반, 심신 법칙, 심신 환원 등을 염두에 두면서 다루게 되는 정신 속성, 물리 속성 등 속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을 당연시하는 데에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 인과와 의식 문제라는 두 쟁점을 비롯한 심리철학의 문제들이 뒤엉켜있는 것이다.

나는 예전의 여러 글에서 이러한 보편자 실재론의 극복을 통해 현대 심리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개별자 존재론으로서의 심신 유명론(psychophysical nominalism as a particularism)을 제안하였다.²⁴⁾

이 글을 맺으면서 이러한 개별자 존재론을 옹호할 때 의식과 정신 인과라는 두 가지 쟁점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개별자 존재론에서의 ‘개별자’는 라이프니츠의 ‘단자(monad)’와 유사하다. 라이프니츠의 단자처럼 어떠한 두 개별자도 서로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단자가 공간적인 개별 존재자임에 반해, 나의 개별자는 시간 차원에서도 개별자인 4차원 개별자이다.²⁵⁾ 이러한 개별자 존재론을 받아들일 때 의식과 정신 인과라는 심리철학의 대표적인 두 가지 쟁점들을 통일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그러한 개별자들의 세계에서는 ‘속성’이란 설사 언급된다 하더라도 보편자로서 실재하는 속성은 아니다. 즉 개별자 존재론에서의 ‘속성’이란 이론(선이론)에 의존하여 구성되는 술어에 다름 아니며, 그러한 술어는 그 이론에서의 인과 법칙의 변향을 이루는 술어인 것이다. 따라서 술어 차원에 불과한 ‘속성’은 특정한 이론의 관점을 토대로 해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즉 도널드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의 경우처럼 동일한 개별 사건의 경우에도 정신 술어(혹은 기술어 description)가 적용되면 정신 사건, 물리 술어가 적용되면 물리 사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의식과 물리 현상이 보이는 배타적인 모습은 술어 차원에서의 배타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의식 현상을 보여주는 심리 술어와 물리 술어는 데이비슨의 표현대로 “주제를 바꾸는”²⁶⁾ 것이기 때문에 서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개별 사건이 경우에 따라 그 개별 사건의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로 의

24) 심신 유명론에 관해서는 백도형(2001) 참조. 이러한 개별자 존재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것은 이 글의 초점이 아니다. 상대성 이론 이후 현대 물리학에서의 시간에 대한 중요성의 증대로 시간적 존재자인 사건 존재론이 중요하게 부각된 마당에, 엔트로피 이론과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보이는 비가역적인 시간관은 비반복적인 사건 개별자에 의한 개별자 존재론을 옹호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나는 백도형(2005A)에서 사건 개별자 존재론으로서 ‘4차원 개별자론’을 제시하였다. 심신 유명론은 4차원 개별자론이 심신 문제에 적용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25) 4차원 개별자론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백도형(2005A) 참조.

26) Davidson(1970), p. 216.

식과 물리 속성이라는 배타적인 특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나의 입장도 정신 인과의 문제를 통해서 반박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컨대 김재권 등이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을 비판한 것처럼, 개별자 존재론의 정신 속성(사실상 술어)은 아무런 인과적 힘을 갖지 않는 부수현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의하면 결국 모든 존재자는 (설사 개별자 존재론 하에서도) 물리적이기 때문에 모든 인과적 힘은 물리적인 것에 의해 선취되어 있고 정신적인 것이라도 어떻게 서술되느냐에 따라 결국 얼마든지 물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은 아무런 인과적 힘을 갖지 못한 부수현상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진정한 존재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개별자 존재론에 의하면 속성이란 존재론적 실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관점에 의해 구성된 술어 차원에 불과한 것인 만큼, 물리 속성이라 해도 어떤 인과적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개별자를 넘어서 어떠한 속성도 (설사 그것이 물리 속성이라고 해도) 존재론적 위상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속성은 그 자체 어떤 인과적 힘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신 인과 문제에서의 '부수현상론 시비'란 결국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을 암암리에 가정한 데에서 오는 해프닝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심리철학이 보여주는 대로 의식과 정신 인과의 문제는 개별자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뒤엎겨있던 난제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통일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7. 맺음말

영미권의 철학계, 심리학계에서는 최근에, 특별히 1990년 이후에 (그 이전에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많은 저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심신 이론들은 물리주의의 전제하에서

정신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환원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특별히 1970년대 이후에 급부상하고 있는 인지 과학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입장인 기능주의도 심신 간에는 환원을 인정치 않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취하지만, 심리적인 것을 컴퓨터 모델을 통하여 기능적인 것으로 환원하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정신적인 것이 갖는 주관성을 무시하고 있거나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으면서 제시되고 있었다. 게다가 김재권 등 정신 인과의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있는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기능주의 등의 존재론적 이념인 비환원적 물리주의에도 심각한 존재론적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등, 기능주의와 그것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인지 과학이 재평가되어야 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들 간에는 아예 정신적인 것의 근본적인 특징인 의식에 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됨에 따라 최근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신(심리) 현상에 속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까지 과학화된 심리학에 의해 포섭되었지만, 전통적으로 정신적인 것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던 의식 현상은 전형적으로 1인칭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성을 지향하는 경험과학의 방법으로는 포착되고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에 과학화된 심리학에 의해 포섭되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관심 영역’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에 관해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많은 저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틀 위에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과 정신 인과를 비롯한 현대 심리철학의 주요 쟁점들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이론은 의식과 물리주의라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두 가지 특성들을 조화롭게 설명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선호하면서 다른 쪽의 직관을 무시하는 방향을 편협하게 옹호하기 일쑤였다. 예컨대 환원주의나 제거주의와 같은 강한 물리주의를 옹호하면서 의식 등 정신 현상의 독특함을 애써 외면하거나, 의식 등 정신 현상

의 독특함만을 강조하면서 물리적인 세계와의 관계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안이한 2원론을 옹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심리철학의 난점의 배경으로 데카르트 이래 제시되었던 전통적인 전제를 찾아내 보았다. 앞에서 본 대로 의식과 정신 인과라는 두 가지 쟁점은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간의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듯한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토대를 검토해 본다면 두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매듭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데카르트 이래 심리철학의 기존 연구에서 안이하게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보편자 실재론이 그러한 매듭으로 작용하여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내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이상학의 입장을 토대로 해서 이 두 쟁점들을 재조명하였다.²⁷⁾

참고문헌

- 백도형(1994), 「주관적 의식의 형이상학 : 문제의 책, 존 써얼 『마음의 재발견』」 (『철학과 현실』 1994 봄)
- _____(1997), 「심신 문제의 두 가지 쟁점」(김여수 외, 『언어, 진리, 문화 2』, 철학과현실사 1997)
- _____(2000), 「‘과학의 시대’에 돌아보는 인문학의 역할」 (숭실대학교 논문집(인문과학편) 30호)
- _____(2001) 「심신 유명론」, 『철학연구』, 제54호.
- _____(2002), 「참을 수 없는 존재론의 가벼움 - 속성 이원론에 대한 비판」 (『철학적 분석』 2호, 한국분석철학회, 2000)

27)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이종권, 김영진 선생님과 채순진, 박지훈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유익한 지적을 해 주신 『과학철학』의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_____(2005A), 「4차원 개별자론」 (『철학연구』 68집, 철학연구회, 2005 봄)
- _____(2005B), 「일반화 논변과 심신 환원」 (『철학적 분석』 11호, 한국분석철학회, 2005 여름)
- _____(2008), 「환원과 속성 - 자율성과 통합」 (『철학사상』 29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년 8월)
- Baker, L.(1993), "Metaphysics and Mental Causation" in : J. Heil & A. Mele(eds)(1993), *Mental Causation* (Oxford Univ. Pr.)
- Burge, T.(1993), "Mind-Body Causation and Explanatory Practice" in : J. Heil & A. Mele(eds)(1993), *Mental Causation* (Oxford Univ. Pr.)
- Chalmers, D. J.(1995/2007A), "Naturalistic dualism" rp. in : Max Velmans & Susan Schneider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CONSCIOUSNESS* (Blackwell Publishing, 2007)
- _____(1995/2007B), "The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 rp. in : Max Velmans & Susan Schneider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CONSCIOUSNESS* (Blackwell Publishing, 2007)
- Davidson, D.(1970), "Mental Events" rp. in : Davidson(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Univ. P.)
- Jackson, F.(1982), "Epiphenomenal Qualia" rp. in : *Mind and Cognition* (W. Lycan ed., 1990)
- Jackson, F.(1986), "What Mary Didn't Know" rp. in : Rosenthal(ed)(1991), *The Nature of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1989), "The Myth of Nonreductive Materialism" rp. in : *Supervenience and Mind* (Ki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Levine, J.(1983), "Materialism and qualia: The explanatory gap" in :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4
- _____(1993), "On leaving out what it's like", in : (M. Davies and G. Humphreys, eds) *Consciousness: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Essays* (Blackwell)
- Nagel, T.(1974), "What Is Like to Be a Bat?" rp. in : Block, N.(ed)(1980),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v.1 (Methuen)

Searle, J. R.(1992) *The Rediscovery of the Mind* (The MIT Press)

Van Gulick, R.(1993), "Who's in Charge Here? And Who's Doing All the Work?" in : J. Heil & A. Mele(eds)(1993), *Mental Causation* (Oxford Univ. Pr.)

Consciousness and Mental Causation

To Hyung Paik

Subjective consciousness and mental causation seem to be inconsistent at first blush, however I think we can find a way to have a consistent explanation of them considering them from a new metaphysical perspectives. From a traditional metaphysical points of views, we take realism about universals and Cartesian mind-body dichotomy for granted, so the problem of mental causation and consciousness retreated to the starting point.

In this article, I suggest psychophysical nominalism as a particularism that can be a keypoint to solve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and mental causation.

[Key Words] consciousness, mental causation, subjectivity, physicalism, realism